

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7. 9. 19.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인사말씀

- 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- 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**소** 업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
 - * 가계부채 관리방안('16.8월),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('16.11월) 등
- ☐ 얼마 전 발표된 8월 **소** 금융권 가계대출(+8.8조원)은 전년 동월(+14.3조원) 및 전월 대비(+9.5조원) 증가규모가 둔화되었고,
 -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액(+58.5조원)도 전년 동기(+74.6조원) 대비 **22%**나 감소하는 등 안정적 추세를 보여줌
 -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월(+3.1조원) 들어 전월(+4.8조원) 대비 **△1.7조원** 감소하였고,
 - 제2금융권 가계대출(+2.3조원)도 전월(+2.8조원) 및 전년 동월(+5.6조원) 대비 증가규모가 감소
 - 반면,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(+1.2조원) 대비 증가세가 다소 확대(+3.0조원)
- ☐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으로 **소** 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도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.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
- ☐ 그러나, 금년 하반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

❶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,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*이 있음

* (상/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, 조원) ('15) +42.7/+66.9 ('16) +50.4/+72.8 ('17) +40.2

❷ 특히, 금년 하반기에는 분양예정물량*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,

* 분양물량(만호, '17년) (1Q) 5.2 (2Q) 9.3 (3Q) 12.4° (4Q) 10.7°

❸ 8.2대책(8.23일 개정 감독규정 시행)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,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

➡ 쉰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,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

2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말씀

□ 조만간 「가계부채 종합대책」이 발표될 예정이므로, 금융회사들도 차질 없는 준비에 매진해 주기 바람

❶ 우선, 新DTI와 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,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

- DSR은 Top-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임

-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,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임

❷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,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함

-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,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

❸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, 프리워크 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람

-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,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

□ 정부도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음

○ 특히,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,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

○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,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람

3 마무리 말씀

□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쉰 업권이 보여준 그 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

○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된 것은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함

□ 그러나,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